

터보퀀트 한 방에 반도체주 ‘흔들’… 삼성전·하이닉스 급락

구글, 신개념 알고리즘 기술 공개
삼성전·하이닉스 주가 약 5~7% 하락
일부에선 “상용화까지 시기상조”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이달 초 반도체 관련주에 투자했는데
...”

개미 투자자들에게 ‘지옥의 4일’이었다. 삼성전자 20만원이 무너진 지난달 20일 이후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6% 마이너스(-)가 났다”며 “하루 동안에만 한 달 치 월급이 날아가니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허탈해했다. 국내외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에 중점적으로 목돈을 넣어 온 박씨(31) 역시 “며칠 전부터 하루 종일 증권사 앱(애플리케이션)에서 5% 이상 떨어졌다는 알림이 쉴 새 없이 오고 있다. 심란해서 일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앱을 안 보려고 하는데도 계속 화면을 보게 돼, 증권사 앱을 지울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반도체에 투자한 개미들의 얼굴에 주름이 한가득이다. 구글이 대규모 언어 모델(LLM) 데이터를 기존보다 적은 자원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신개념 알고리즘 기술을 공개하자, 세계 주요



ChatGPT로 생성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관련 이미지.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어서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5.16% 하락한 16만7200원, SK하이닉스는 7.56% 급락한 80만7000원에 마감했다. 3월 한달 동안 삼성전자는 22.77%, SK하이닉스는 23.94%씩 급락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것은 미국 구글이 공개한 새 알고리즘 기술 ‘터보퀀트’ 영향이 컸다. 구글 리서치가 25일(현지 시간) 발표한 터보퀀트는 AI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AI 모델은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메모리(기억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반면 구글 리서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터보퀀

트를 쓰면 필요한 메모리 양이 기존보다 6분의 1로 줄어든다. 처리 속도도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H100’보다 최대 8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가 거의 손실되지 않게 압축해 처리하는 기술을 적용한 덕분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AI 기술의 효율성 증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 마이크론, 샌디스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주 전반에 걸쳐 급락세를 연출했다”며 “당분간 관련 이슈를 둘러싼 금·부정 공방전이 전개될 수 있고, 반도체주 급락을 초래했던 터보퀀트 사태 여진의 진정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터보퀀트 충격은 단기 이슈로 그치지 않고 있다. 해당 기술이 반도체 수요를 감소시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조기에 꺾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장의 불안도 커지는 모습이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23% 떨어졌으며, 마이크론은 9.8% 급락하며 반도체주 약세를 지속했다.

반면 터보퀀트 연구 결과 공개에 따

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하락세가 지나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글이 아직 연구 논문을 통한 결과를 공개한 것일 뿐 실제 상용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번스역설’을 근거로 메모리 효율 증가는 비용 감소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시장 확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구글 터보퀀트와 같은 저비용 AI 기술은 AI 사용 장벽을 낮추고, 전체 수요를 폭발적으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며 “효율 개선이 오히려 총 수요를 확대시키는 리바운드 효과의 경로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결국 구글 터보퀀트의 최대 수혜도 반도체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장문영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터보퀀트 기술은 메모리·연산 효율을 동시에 개선해 AI 활용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AI 적용 범위 확대, 사용량 증가를 통해 오히려 메모리 수요 확대 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은퇴자금 투자 대세는 TDF... 8년 만에 18배 성장

지난해 말 TDF 순자산 25.6조
TDF 자산 95.3%가 연금 자금

생애주기펀드(TDF)가 퇴직연금 시장의 핵심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TDF 순자산은 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2018년 1조4000억원 수준에서 출발해 불과 8년 만에 18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이 같은 성장의 중심에는 퇴직연금이 있다. 전체 TDF 자산 중 연금 비중은 95.3%에 달하며, 이 가운데 퇴직연금이 83.8%를 차지한다. 개인연금 비중(11.5%)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TDF가 사실상 퇴직연금의 대표 운용수

<연도별 TDF 순자산 현황> (단위:조원)

연도	순자산	성장률(%)
2018년말	1.4	
2019년말	3.3	135.7%
2020년말	5.2	57.6%
2021년말	10.9	109.6%
2022년말	10.4	-4.6%
2023년말	12.1	16.3%
2024년말	16.5	36.4%
2025년말	25.6	55.2%

단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 등 위험자산과 채권 등 안전

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구조다. 초기에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안정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 같은 구조는 퇴직연금과의 궁합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퇴직연금은 장기 투자 성격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원리금보장 상품에 편중돼 낮은 수익률에 머물러 왔다. 반면 TDF는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실제 성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2025년 TDF 평균 수익률은 13.7%로, 같은 기간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6.5%)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 디폴트옵션 수익률(3.7%)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크다.

이처럼 높은 성과와 구조적 장점이 맞물리면서 퇴직연금 자금이 TDF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적격 TDF의 경우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어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TDF의 성장이 단순한 상품 확대를 넘어 연금 투자 패러다임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 예치형 상품 중심에서 벗어나, 글로벌 자산배분 기반의 투자형 연금으로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TDF는 노후 대비를 위한 중장기 투자상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운용 환경을 조성해 연금 투자자의 선택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2월 기업 자금조달 증가... IPO·금융채가 견인

전체 공모 발행액 19조2497억
주식 발행 3415억으로 215.6% ↑

지난 2월 기업들의 직접금융 조달 규모가 확대되며 주식과 회사채 발행이 전월 대비 증가세를 나타냈다. 기업공개(IPO) 시장 회복과 금융채 발행 확대가 전체 자금조달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2월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주식·회사채 공모발행액은 19조2497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5057억원(8.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식 발행

은 3415억원, 회사채는 18조9082억원을 기록했다.

주식 발행은 큰 폭으로 늘었다. 총 7건, 3415억원으로 전월 대비 215.6% 증가했다. IPO는 코스피 1건, 코스닥 2건 등 총 3건, 2908억원으로 집계되며 전월 대비 265.8% 늘었다. 유상증자 역시 4건, 507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모두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뤄졌다.

회사채 발행은 292건, 18조9082억원으로 전월 대비 7.2% 증가했다. 금융채가 13조3670억원으로 37.6% 급증하며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은행채

와 금융지주채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일반회사채는 5조1137억원으로 28.7% 감소했다. 자금 용도별로는 차환 목적이 3조8871억원으로 76.0%를 차지해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차입금 상환 중심 발행이 이어졌다. 신용등급별로는 AA등급 이상 우량물이 6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A등급 30.8%, BBB등급 이하 3.6% 순이었다. 만기는 중기채 비중이 96.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산유동화증권(ABS)도 4275억원으로 전월 대비 42.6% 감소했다. 이에

따라 2월 말 기준 전체 회사채 잔액은 748조4481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4104억원(0.6%) 줄었다. 일반회사채는 순상환 흐름이 이어졌다.

단기 자금조달 수요는 여전히 견조했다.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발행액은 159조5722억원으로 전월 대비 3.1% 증가했다. CP 발행은 감소했지만 단기사채는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발행 확대를 이끌었다. 특히 단기사채는 전년 동월 대비 47.6% 급증했다.

2월 말 기준 CP 잔액은 245조3983억원, 단기사채 잔액은 86조5256억원으로 각각 전월 대비 증가했다. 기업들의 단기 유동성 확보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허정윤 기자

한양증권 새 CI 담은 ‘비HY인드’

한양증권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신규 CI(Corporate Identity)를 주제로 한 브랜드 필름 ‘비HY인드’를 오픈했다.

한양증권은 브랜드 리뉴얼 과정을 담은 콘텐츠 시리즈인 ‘비HY인드’ 두편을 공식 유튜브 채널 ‘하이굿 by 한양증권’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브랜드 필름은 브랜드 전략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스토리텔링 영상과, CI 디자인의 배경과 의도를 담은 영상으로 구성됐다.

두 편 모두 실제 브랜드 전략과 디자인 관점을 바탕으로 내레이션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변화의 배경과 방향성을 명확하고 일관된 언어로 전달한다.

또한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제작 과정을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풀어내며, 브랜드가 지향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담아냈다.

브랜드 스토리텔링 영상에서는 한양증권이 추진해온 변화의 배경과 성과, 그리고 향후 성장 전략이 담겼다. 특히 ‘왜 지금 변화를 선택했는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새롭게 가져가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브랜드 개편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신규 CI의 핵심인 ‘HY’ 심볼은 전통과 혁신을 연결하는 한양증권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이어 브랜드 슬로건 ‘Heritage & Young’을 통해 전통 위에 빠른 실행력과 자본 효율성 중심의 경영 전략을 더하는 의미를 담았다.

비주얼텔링 영상에서는 신규 CI를 개발한 디자이너의 관점을 바탕으로, HY 심볼의 구조와 디퍼플 그라데이션 등 주요 비주얼 요소와 디자인 의도를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